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강남식

들어가며

한국의 진보 여성운동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여성운동 내에서 주류 운동으로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1983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여성해방'을 목표로 내건 <여성평우회>를 필두로 <여성의전화>, <또하나의문화>,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여성위원회(이하 민청련여성부)> 등의 단체가 창립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지식인 중심의 각 단체들은 운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1987년에는 '민주화, 자주화, 여성해방의 쟁취'를 목표로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 결집하게 된다. 이들은 대체로 가부장제 문화 타파를 가장 중시하는 <또하나의문화>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이 곧 여성해방운동이라고 보았다. 이 단체들은 스스로를 '진보'로 명명하고, 분단 이후 30여 년 동안 정부주도하에 활동해 온 주류이자 관변 여성단체들을 '보수'로 칭하고, 다음과 같이 당시 주류 여성운동을 비판하며 자신들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일제 말기에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일부 여성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여성운동은 지배자의 통치논리를 강화하는 데 급급했으며, 민족의 현실과 민중의 요구 속에 바로 서기를 거부했다……여성운동은 상류층의 사교모임으로 전락했고 자선사업이나 소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획득 등이 전부인 양 호도되어 왔다. 이렇듯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여성 운동에 올바른 항로를 제시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층여성들이었다……이들의 생존권 및 평등권 투쟁에 자극받아 젊은 지식인 여성들도 과거 여성운동의 허위와 오류를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민청련여성부, 1984)¹

바로 이러한 관점이 한국여성운동이 자유주의나 급진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여성 독자적 이해를 추구해 간 서구의 여성운동과는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여성운동이 분단극복과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사회 변혁운동 속에서 등장, 발전해 온 발생론적인 요인(강남식, 1999)과 계급·민족·인종의 문제와 성차별 문제를 분리시켜 보지 않은 제3세계 여성운동의 영향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승희, 1998)

이에 1980년대 진보 여성운동은 ‘기층여성 중심성’을 진보의 핵심 내용으로 규정하고, 주변적이고 비주류적인 위치에서 여성주의적 실천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비주류 진보 여성운동이 20여 년 이후 주류화되었다는 것은 전체 여성운동의 이념과 주체 그리고 이슈와 운동 방식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아울러 진보의 내용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은

1 <여성평우회> 역시 창립시 회원 자격에 대한 논의에서 ‘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로 회원을 구성할 것을 결정’ 하고, ‘젊은 여성’들의 범주도 내규로서 40세 미만으로 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여성평우회> 사무국장이었던 이경숙 씨는 “40대가 되면 너무 보수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항의가 있기도 했어요”라고 말했다. 여성평우회 창립2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 2003.

진보 여성운동이 등장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개된 여성운동의 흐름을 정체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함으로써 운동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21세기 한국여성운동의 쟁점을 짚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학문적인 이론들에 맞추어 분석적으로 쓰기보다,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 경험에 힘입어 쓰고자 한다.

진보 여성운동의 등장과 발전

1. 변혁적 이념에 기초한 여성운동의 등장 : 1980~1986

① 진보적 지식인 여성 집단의 형성과 정체성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변혁적 이념에 기초하여 전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여성운동을 이끌어 갈 새로운 주체인 '진보적 지식인 여성운동가'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들은 출신 배경과 이념적 성향에 의해 두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하거나 이들에 의해 신좌파와 그에 기반한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여성억압의 독자적인 체계를 인정하면서 여성을 '여성전반'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로 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수용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대학별로 소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경험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또한 빈민 야학이나 노동 야학, 농활, 그리고 노동현장의 경험을 통해 '같은 여성'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을 목도했다.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2 강남식/남인순/윤정숙, 「80~9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전개와 평가」, 『80~90년대 여성운동의 평가와 세기전환기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1999.

일차적인 기반으로 했던 사회주의나 급진주의 여성운동이론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단지 서구여성의 문제를 다룬 서구 여성운동 이론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면서도 여성들 간의 계급에 따른 '다름'을 주목하면서, '여성적 이해'와 '계급적 이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정체성은 노동자적 계급성을 갖는 기층여성이었다.

진보적 지식인 여성들은 1983년 후반 유희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성운동의 이념에 따라 조직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전반으로 설정하였던 쪽은 <여성평우회>나 <또하나의문화>의 구성원이 되었고, 기층여성으로 설정했던 쪽은 일부가 <여성평우회>로 들어갔으나 대다수는 <민청련여성부>에 집결하였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여성해방' 이념을 내건 본격적인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② 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등장

진보적 지식인 여성들이 주도하여 창립된 <여성평우회>는 여성억압기제를 가부장제 사회구조로 상징하고 여성적 이해를 명확히 부각시켜 독자적인 여성단체로서의 인정과 대중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여성평우회, 1984:6; 이미경, 1998:20)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에 성공하면서 여성대중들에게 참신하게 어필해 가기 시작하였다. <여성평우회> 초기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활동지침에서도 밝혔듯이,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한 문화운동이었다.(<여성평우회, 1984) 1984년 10월과 12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 '여성문화 큰 잔치: 일하는 여성'은 서울에서만 1,700명이나 참여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다. <또하나의문화>도 <여성평우회>와는 다른 각도이긴 하나 소집단 활동과 활자 매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녀평등 지향적인 대안문화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갔다.(<또하나의문화>, 1984)

주로 새로운 방식의 여성문화운동을 전개해 가는 <여성평우회>와 <또하나의문화>와는 달리, <민청련여성부>는 “한국의 여성대중들이 겪고 있는 억압적 상황은 그 본질에 있어 한국의 민중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성대중은 같은 계층의 남성들이 받는 경제적 억압과 더불어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화 운동으로서 여성운동, 기층여성운동 지원의 임무를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민주화의 길>, 1984) 민청련 여성부는 발족 이후,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통해 여성운동 이론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여성노동자 인권, 기생관광반대, 여대생 추행사건 등 참여한 여성문제의 정치문제화를 시도하여 여성운동의 정치 투쟁력을 높여 갔다.(<민주화의 길>, 1984, 1985)

84년 중반부터 사회운동은 변혁운동으로 규정되면서 변혁의 주체세력, 변혁운동의 대립물과 단계를 규정하기 위한 사회구성체 논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기층민중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됨으로써, 기층여성문제가 여성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흐름은 여성운동으로 하여금 1985년 제1회 3·8 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전히 민주화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던 <또하나의문화>나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등과도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어 내, ‘민중·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1985년 여성운동선언’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진보적 지식인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여성운동은, 이념의 편차를 떠나 여성운동을 전체 사회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위치지으며 기층여성운동을 운동의 주체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6년 제2차 여성대회에서는 기층여성운동 지원을 위한 연대틀로서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발족시키고, 여성운동은 “기층여성의 문제를 여성운동의 실질적 과제로 위치지우고 기층여성들의 여성운동에의 주체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사회구성체 논쟁을 전개하며 변혁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자, 여성운동도 민족민중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로 심각한 논쟁과 내분을 겪게 된다. <민청련여성부>는 사회구성체 논쟁의 초기단계에서 입장 정리를 거쳐 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위상을 명확히 한 반면(민청련여성부, 1984: 79-80), <여성평우회>는 심각한 내분을 거쳐 이 입장을 수용하나 결국 해체되게 된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첫째, 민족민주민중 이념을 토대로 한 변혁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운동론을 둘러싼 논쟁과 연대 활동을 통해 진보적 여성운동 간에 여성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은 계급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성운동에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기층여성'으로 하였다. 셋째, 여성운동의 실천에서 정치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1987년에 여성 진보 블록인 <여성연합>의 결성이라는 성과를 낳게 한다.

2. 민주화·통일 운동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 1987~1992

①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민주화 운동의 대 투쟁기로 기록된 1987년은 민주화 운동의 폭발적인 힘과 함께 여성운동도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비약을 하는 시기였다.³ 여성운동은 1987년 2월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여성연합>을 발족시켜 여성운동의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더불어 6월항쟁 이후 민선군부정권의 수립과 88년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 국회의 성립 이

3 이때 창립된 단체로는 <한국여성노동자회>(1987년 3월), <여성민우회>(1987년 9월), <제주여성회>(1987년 11월), <충남여성회>(1987년 12월), <대구여성회>(1988년 1월), <경남여성회>(1987년 4월), <광주전남여성회>(1988년 2월), <전북민주여성회>(1988년 2월), <거창여성회>(1988년 3월) 등이 있다.

후, 불안정하고 왜곡된 상태이긴 하나 자율적인 시민사회 영역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와 공간 속에서 서울과 지방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앞다투어 창립되어 여성운동의 지역화·대중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운동의 실천은 빈민, 농민, 생산직과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과 생존권 쟁취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성연합> 중심의 여성운동은 이들과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중심과제를 민주화, 기층여성운동력 강화, 생존권 쟁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여성연합, 『정기총회자료집』, 1998) 또한 통일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에 가입연대활동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1989년에 이르면 <여성연합>은 회원단체가 24개로 증가하고, 독자적으로 민민운동을 수행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비록 <또하나의문화>나 주부단체가 탈퇴하였으나, 민민운동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은, <여성연합>이 민민운동의 정치투쟁의 중심체로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에 가입하면서 정점을 이룬다.⁴ 그러나 바로 그 시점부터 민족민주운동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② 민민운동의 지형 변화와 여성운동

민민운동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 논란은 근본적으로 89~90년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후 진보연합전선운동의 급격한 축소로 인한 운동지형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1990년 이후 여성운동은 스스로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 논쟁을 시작한다. 부문에서 '함께 또 따로'란 슬로건이 등장한 것도 이 시점이다. <여성연합>은 1989년 회원

4 1989년 <여성연합>이 <전민련> 가입을 놓고 토론을 벌였을 때 24개 단체에서 3단체만 반대했으나, 1991년 <전국연합> 가입을 놓고 벌어진 토론에서는 단지 4개 단체만 찬성하였다. 이 미경, 1998, 『민주여성』 제12호, 1992.

단체의 다수결로 <진민련>에 가입하여 <진민련>과 함께 정치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회원단체들의 지원과 참여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원단체들은 여성운동이 민민운동의 적극 전개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결정했으면서도, 실제 운동은 정치투쟁보다 여성의 특수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미 <한국여성민우회>는 1989년부터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대중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1991년 3당 합당으로 군부정권으로서의 지배정권의 성격이 희석화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강화된다. 여성운동은 운동의 방향, 운동방식, 운동주체 설정의 문제를 이념적, 실천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여성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및 합의를 이루었다.(이승희, 1991; 이미경, 1992)

먼저 여성운동의 성격과 영역에 대해서, 여성운동은 변혁적·총체적 전망을 견지하되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동의 주체도 기층여성중심주의가 갖는 국지성을 극복하고 사무직, 주부 등 중간 계층으로 확산하기를 제안하였다. 운동의 영역도 생산현장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재생산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직결된 환경, 교육, 성, 문화,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운동 방식도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나 정책대안 모색으로 변화하였다. 아울러 연대 방식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민민운동에 대해서는 전국연합과의 연대에서 보듯이 '사안별 연대' 방식을 택하였다. <여성연합> 회원단체들 간의 연대는 매년 중점사업을 정하여 이를 통해 전체 여성운동의 통일성과 회원 단체간의 결속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성연합>과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여성단체와의 개방적인 연대를 도모하여 가족법 개정도 이루어 낸다. 여성

운동은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통일운동에서도 큰 성과를 얻었다. 1991, 1992년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개최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던 것이다.

여성운동은 이와 같이 입장정리를 해 가며 운동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급격히 쇠퇴하는 민민운동과는 달리 오히려 저변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영희, 1997) 첫째, 여성문제의 특성상 여성운동이 갖는 상대적 독자성 추구로 민민운동 진영의 혼란과 동요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운동지형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1980년대 여성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전개되었음에도 여성적 이해에 실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넷째, 1990년대의 사회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민족, 계급 등 거대담론보다 환경, 성, 문화 등 의제의 부각과 함께 페미니즘의 상품화도 한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전개는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규정했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시대적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 시기 여성운동은 분단 이후 여성대중들의 이해와 관계 없이 활동을 해 오으로써 외면과 비판을 받아 온 보수·관변 여성단체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즉 기층민중여성들의 생존권 문제와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분단 이후 한국 여성운동은 비로소 여성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여성운동의 독자성 구축, 주제와 영역의 확대 : 1993~현재

1992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민간정권 시대로 이행하였다. 민간정부의 등장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30여 년간에 이르는 군부정권 시대와

는 다른 정치적, 제도적 공간을 여성운동에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전개되어 온 여성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은 독자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운동으로 독자성을 구축하였다. 여성운동의 독자성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주체 역량의 강화이다. 이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1980년대의 운동 경험과 축적과 역량을 토대로 한 주체들로 1980년대 반독재 변혁운동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의 여성운동가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영young 페미니스트의 등장이다. 이들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하에 성적 정체성과 차이의 정치학을 중시하면서 주로 사이버 공간이나 소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둘째, 운동 영역의 확대와 함께 각 부문에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은 이전에 간과되었던 운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생산 영역에서 재생산 영역으로, 환경, 교육, 성, 문화, 통일과 평화, 이데올로기 등으로 확대되었고, 각 부문에서의 전문성도 강화되었다. 특히 성성과 문화영역에서의 발전은 두드러졌다.

셋째, 국내외 여성연대가 확대되었다. 먼저 국내는 정치적 입장이 다양한 여러 여성운동 단체나 사회단체들과 사안에 따라 연대의 확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여성연대 중 대표적인 사례는 <여성연합>이 중심이 되어 92~93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한 것으로, 보수집단으로 규정되었던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56개의 여성단체가 참여한 것이었다. 국제연대 역시 확대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연대운동이었다. 정신대문제는 국제적인 여성연대를 통해 가장 짧은 시간에 운동의 성과를 획득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 여성연대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였다. 북경대회는 이전에 정부대표 소수가 참여하던 여성대회와는 달리 처음으로 한국 여성 NGO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여성대회였고, 이를 기획한 <여성연합>의 지평

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북경대회에서 내건 12과제는 <여성 연합>이 이미 다루어 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여성운동의 보편성과 대중성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넷째,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운동에서의 성과이다. 이러한 발전은 여성운동이 성 주류화를 주요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주류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필두로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여성관련법이 제정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여성단체연합, 1998) 아울러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진보 여성운동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간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처음 비주류로 출발하였던 진보 여성운동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특히 성주류화 전략이 정부의 여성정책 전략으로 채택되는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주류로서의 위치를 획득해 간다.

반면 새로이 등장한 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을 비주류 진보로 규정하고 기존의 진보 여성운동은 제도화, 관료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진보'의 의미를 새로이 제기하고 있다.

시기별 여성운동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성(性)과 계급 논쟁

1980년대 여성운동 진영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논쟁은 성성과 계급 논쟁이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페미니즘은 서구와는 달리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였다. 특히 진보적인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198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여성운동의 방향이나 여성학 이론을 둘러싸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간의 대립이 첨예하였다. 이것은 자유주의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주류인 미국의 상

황과 다르고,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서구와도 다른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한국 페미니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강남식, 1999)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계에서 벌어진 성/계급 논쟁은 먼저 여성운동 내부에서 몇 년간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거쳤고, 다음으로 여성학계로 확장되어 전개되었다. 여성운동 내에서 벌어진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논쟁은 1984년 중반 사회운동 진영에서 시작된 사회구성체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먼저 성과 계급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성억압의 기원 및 본질, 자본주의하에서의 여성 억압의 규명문제와 여성문제 극복을 위한 조건을 보는 시각과 관련되었다. 다른 하나는 여성연대운동의 활동방향, 즉 전체 변혁운동 속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전자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민청련여성부> 내에서 이루어졌고, 후자는 전자의 논쟁 이후 <민청련여성부>를 탈퇴한 일부가 <여성평우회>와 합류하면서 <여성평우회> 내부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성과 계급을 둘러싼 두 번째 논쟁은 첫 번째 논쟁을 통해 1987년 이후 여성문제에 있어 계급 우선성을 받아들이진 보적 여성운동과 <또하나의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의 근본원인을 계급 문제로 파악하면서도 민족민주문제와 결합하여 운동을 전개해 갔다면, <또하나의문화>는 가부장제와 성적 요인을 근본원인으로 보고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여성운동은 성과 계급 문제를 둘러싸고 전선을 달리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전개해 갔고, 이는 한국여성 현실과 문제에 충실하고자 했던 여성운동의 격렬한 몸부림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함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진보 여성운동은 정책

지향적인 운동에 치중해 감으로써 지식과 담론 영역에서 더 이상 대안적인 이론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진보적인 여성운동론 생산에 적극적이었던 여성학자들이 제도학계에 순치되어 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좌파민중운동의 침체, 경제적인 안정과 절대빈곤의 완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의 부상, 젠더·섹슈얼리티라는 이전에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여성 이슈의 확대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강남식/오장미경, 2003)

이에 1990년대는 여성문제를 성이나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여성적 정체성을 단지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는 1980년대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됨으로써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에도, 1980년대까지 중요한 문제인식의 지점이었던 '계급적 인식'은 더 이상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영역은 아니었다. 오히려 1980년대에 기층여성 중심의 '노동자' 정체성에서 1990년대의 '여성일반'의 정체성으로의 인식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조주현, 2000)

그러나 여성적 정체성은 성, 계급, 인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구성되는 다중적인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에만 의거하여 여성문제를 정의하고 실천할 경우,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이처럼 1980년대의 성/계급 논쟁은 독창적인 한국적 여성학 및 여성운동 이론의 초석을 닦았지만, 그런 논쟁은 1990년대의 발전과 상관없거나 오히려 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절하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계승의 맥락에서 포착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절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는 1980년대의 진보적 여성운동권의 소중한 문제제기를 엘리트류의 '교조적 이론 생산경향'으로 폄하하는 한편, 이에 반해 진지한 논쟁의 예봉을 '대중적 저널' 출간작업으로 피해 간 <또하나의문화>의 작업을 1990년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지평에서 여성의 다름을 심화시키는 작업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조주현, 2000:243) 오류를 낳게 된다.(강남식/오장미경, 2003)

2. 민족 문제와 젠더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1990년대로 들어와 여성운동 진영의 주요논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족과 젠더 문제에 관한 논쟁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내재해 있는 젠더와 민족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여성학계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졌는데, 민족과 젠더 중 젠더 요인을 강조하는 그룹과 젠더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요인 또한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다.(강남식/오장미경, 2003)

먼저 전자의 입장은, 민족담론과 페미니즘 담론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면서 민족담론의 해체를 주장한다.(김은실, 1994; 윤택림, 1994) 이들은 민족은 실체가 없는 상상적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보면서 “민족주체성의 단일성을 통해 민족유산은 ‘상상적 한국(imagined Korea)’을 재강화함으로써, 상상의 한국에서 민족주체성의 단일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계급분리, 지역성, 성별 차이도 없어져” 여성들은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단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윤택림, 2003) 그러나 여성은 개별적인 욕구를 갖는 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서의 확실성을 지닌다고 보면서, 근대 민족주의 기획에서 여성은 배제되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통합되었다며 민족담론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성과 민족요인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민족은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으로써, “거의 단일한 정치체로 살아온 한국인의 민족주의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절대불변의 실체’로서 페미니즘이 민족주의 운동과 결별하는 순간, 여성들은 하부문화에 격리된 채 자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정현백, 2003)

실제 박현옥은 일제 시대인 1930년대 중국 동북부 간도지역에서의 조선인 농민여성이 정치화된 사건을 어느 한 가지의 인식틀로만 고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성' 과 '민족', '계급' 이라고 하는 세가지 복합적 관계구조 안에서 해석해 내면서,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에서처럼 가족이나 모성이 여성 억압의 한 근원지로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혁명에서 '계급 의식과 민족주의의 핵' 으로 유지되었다고 본다.(박현옥, 1994) 이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학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성과였다는 점에서 여성학 연구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서구 여성학의 제국주의적 측면에 대해 의심을 품는 입장도 있다.(정진성, 1999)

특히 정현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고려가 빠질 수 없는 것은 분단극복과 통일의 과제 때문인 것으로, 이미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성운동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있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난 여성의 주변화 그리고 통일 후 여성적 삶의 피폐화는 페미니즘이 민족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여성운동이 유효적절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정현백, 2003) 그러므로 젠더, 민족, 인종은 서로 착종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기보다 유사성과 차이에서 나타나는 복합성과 연속성을 수용하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안연선, 2003)

3. 정치세력화의 문제: '끼어들기와 새판짜기'

21세기로 들어와 여성운동의 핵심적인 화두는 정치세력화였다. 여성운동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세력화를 모색해 왔고, '대안의 정치(영향의 정치)' 와 '참가의 정치' 틀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참가의 정치' 는 1995년 북경대회 이후 성주류화와 함께 여성운동의 주요 전

략이 되어왔다.(강남식/남인순/윤정숙, 1999) 성주류화 전략은 대안적인 여성주의 패러다임을 찾지 못한 진보 여성운동 진영의 주요 담론이 되었고,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성주류화 전략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격화되면서 ‘참가의 정치’는 정당성과 그 폭이 넓어졌다.

‘참가의 정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문제인데, 여성단체 대표들이 여성부를 비롯하여 국가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에 관료로서 참여하고, 중앙과 지방 의회로 진출한 것 등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집단이 누가, 어떻게 그 제도 공간으로 진입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참가의 주도성은 제도정치가 행사하고 진입여부의 선택은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게 되면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이 손상되고 특히 도덕성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진보적인 여성운동단체인 <여성연합>은 1999년부터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라는 틀로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 1월 정기총회에서 “정치를 재개념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사영역을 재정치화하고 일상생활을 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비엘리트적이고 비국가적인 지역정치, 사회운동의 정치”(이경숙, 2000)를 표방하는 대안의 정치, 즉 ‘새판짜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성연합> 대표와 산하단체 대표들은 임기 중 정치진출을 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이 결정은 <여성연합>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30% 할당제’ 주장과 배치되고 막상 개인이 참여를 고집할 경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대안사회 구현을 위한 ‘새판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보다 여성들만의 힘으로 새판짜기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오히려 제도의 안과 밖은 여성세력화를 위한 다른 공간일 뿐 분리·모순된 영역이 아니므로, ‘새판짜기’의 큰 틀 안에서 상황과 역량에 따라 ‘끼어들기’ 전략을 구사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겠느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실제 <여성연합>은 2003년에 접어들어 2004년 총선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8월에는 1박2일 동안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격렬하게 찬반양론 토론을 벌인 후 '후보전술' 방안까지 합의하였다. 아울러 자체 내규도 "임기 중이라도 3개월 전에 사퇴하면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수정했다. 즉 2004년 총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끼어들기' 전략을 채택한 것이었다.

이같은 <여성연합> 내부의 논의가 여성운동 전반의 논쟁으로 확대된 것은, <여성연합>이 '끼어들기'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면서였다. <여성연합>은 2003년 8월 전국 321개 여성관련 단체들과 <총선여성연대>를 결성하고, 11월에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맑은 정치여성네트워크>를 만들어 여성의 정치진출을 적극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치세력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핵심 요구사항은 비례대표 중 50% 여성할당,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여성을 공천위원회에 30%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여성연합> 중심의 여성정치세력화 전략은 즉각 '끼어들기' 전략을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 특히 <일다>의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일다>는 '여성주의는 가부장제와 손을 잡을 수 없다' 라며,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당을 불문하고 여성들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결과적으로 남성 패거리 정치에 함몰되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를 변혁시키는 '새판짜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다>, 2003.7.28) 특히 여성단체장의 정치 진출은 첫째, 여성운동비판기능과 권력 감시기능의 약화, 둘째, 여성운동의 순수성 상실로 인한 입지와 발언력 약화, 셋째, 여성운동조직 내 리더십 재생산의 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여성운동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일다>, 2003.9.15)

이같은 논쟁은 2003년 10월 <여성연합> 상임대표였던 이오경숙씨가 대표

직을 사임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부터 한층 가열되었다.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여성단체장의 정계진출, 여성운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였다. 논쟁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여성연합> 측이 정기국회에 올라간 사안들—정치관계법, 정부조직법개정(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성매매방지법제정—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단체장의 정계진출은 ‘여성의제화 실현’을 위한 것으로 여성을 위한 유효한 활동이라고 한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여성총원 이유가 “부족한 지지기반 보충”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구조상 ‘여성의제화’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어서 여성단체장의 정계진출이 여성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성단체의 비판기능 약화는 분명한 현실”이라며, 그 예로 “<여성연합>이 여성부의 정책입안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분명 시민사회단체의 본말전도”라고까지 비판하였다.(<일다>, 2003.12.6)

논쟁은 총선 이후에 더욱 격렬해졌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것은 <여성연합>이 주최한 ‘17대 총선과 여성운동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에서였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994년부터 2004년 총선까지 <여성연합>의 대응은 영향의 정치에서 참가의 정치로의 방향 전환이 있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39명의 여성의원 당선, 민주노동당 진출 등 한국 정치지형을 바꾸고, 정치자금 10%를 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비례직 확대 및 여성 50% 할당제를 제도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남윤인순, 2004)

이에 대해 <일다>는 “17대 총선 결과를 놓고는 다들 39명의 여성정치인 명단을 거론하면서 ‘여성정치’ 서막이 열렸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총선에서 여성정책은 전혀 이슈화되지 못했다”며 “‘생물학적 여성’에 근거한 ‘정당불문 여성지시’는 결국 남성중심 정치관과 각 정당의 성차별적 태도에 대

한 비판을 불가항력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일다), 2004.5.31) 더 나아가 토론에 나선 조순경 교수는 17대 총선에서 여성운동의 대응방식은 여성연합이 ‘권력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0년대 서구 여성정치참여 이후 여성운동이 ‘위기’와 ‘사멸’을 경험”한 선례를 들며, ‘여성운동의 위기’로 까지 규정하였다.(조순경, 2004)

이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는 “여성운동의 상상력을 넓혀주는 여성학자들의 혼수두기는 동의하나……여성학자들이 ‘그들만의 아카데미즘’에 갇혀서 여성운동이라는 큰 배를 함께 타지 않고, 그 방향 조정기를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조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과도한 비판’으로 오히려 ‘여성학의 위기’로 비쳐진다”고 반박하였다.((시민의 신문), 2005.5.26)

이상과 같이 17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정치세력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은 먼저 그동안의 연구와 실천이 각기 그것의 성과와 한계를 입증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얼마나 충분히 갖지 못했는가를, 다음으로 여성운동 진영 내부 간의 의사소통과 연대가 어느 정도나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천없는 이론을 추구해 온 여성학과 이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여성운동 간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드러낸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논쟁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미 주류화된 진보 여성운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권력화’ 되었다고 비판받음으로써, ‘진보성’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는 점이다.

맺음말

1980년대 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등장한 진보 여성운동은 21세기로 들어와 주류화되면서 새로운 비주류 ‘진보’ 여성운동으로부터 ‘진보성’에 도전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운동의 출발시 진보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했던 운동의 지도력은 이제 40대 후

반에서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보수의 상징이었던 기성세대라는 연령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올드old 페미니스트로 규정받는 이들이 영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며 진보 여성운동을 발전시켜 갈지 자못 흥미롭다.

그동안 영 페미니스트들은 그 지형이 다양함에도 대체로 여성운동을 진보적/보수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현상, 좌파적 운동만 진정한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관점, 그래서 진보적 여성운동만을 진정한 여성운동이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 비판해 온 바 있다. 즉 계급, 민족, 성, 성적소수자 등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며 어떤 문제는 다른 문제(원인)에 의한 현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이박혜경, 2001) 실제로 그간 진보 운동권의 경우 가부장적 행태를 보여 온 측면이 있고 여성 문제나 여성운동, 여성주의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면 이들의 비판은 동일하게 진보 운동권의 계급주의, 남성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신 '여성주의'의 울타리 안에 안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즉 이 우려는 영 페미니스트들의 진보성은 역사성이 탈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였다.(강남식/오장미경, 2003)

그러나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지켜보며 이런 염려는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왜냐하면 영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정체성의 우선성보다 여성정치인이 소속된 정당이념, 즉 '정치이념'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맥락을 떠나 '여성'을 한 묶음으로 보려는 시도는 한국의 여성정치를 둘러싼 담론의 핵심이지만,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일다*, 2004.5.31)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분명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영 페미니스트들의 입장, 즉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중시하지 않은 채, '위계나 중심을 상정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차이'를 강조하던 입장과는 매우 다르다. 여성적 정체

성을 가장 중시해 왔던 영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입장의 발전인가? 아니면 담론 지형의 분열을 드러내는 것인가?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20여 년 전 스스로를 '진보'로 명명하고, 분단 이후 30여 년 동안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없이 정부주도하에 활동해 온 주류이자 관변 여성단체들을 '보수'로 칭하며 등장했던, 비주류 진보 여성운동가들 주장의 21세기형 버전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류화된 진보 여성운동은 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영/올드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 여성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강남식, 1999,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국적 수용: 1980년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5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강남식/남인순/윤경숙, 1999, 「80-90년대 여성운동의 평가와 세기전환기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세기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한국여성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자료집)』.
- 강남식/오장미경, 2003,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 페미니즘」,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아카데미.
- 김영희, 1999, 「한국여성운동론의 특징과 과제」, 99년 5월 한국여성연구소 월례논단 발표문.
- 김은실, 1994,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0집.
- 《또 하나의 문화》, 1985-2000.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1986, 《민주화의 길》.
- 박현옥, 1994, 「여성, 민족, 계급」,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10집.
- 시타, 2001, 「길에서 사는 법 터득하기」,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12호, 창작과비평사.
- 안연선, 2003,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 여성연합, 2004, 「17대 총선과 여성운동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토론회 자료집」.
- 여성연합, 1999,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여성연합, 1997, 『민주여성합본호』.
- 여성연합, 1987-2004, 『장기총회자료집』.
- 여성연합 위, 1998, 『열린 회랑』,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여성평우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2003, 『여성평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여성평우회 발자취』.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역사비평사.
- 윤택림, 1994,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10집.

- 이박혜경, 2001, 「여성(주의), '진보' 를 묻는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12호. 창작과비평사.
- 이승희, 1998, 「여성운동과 한국의 민주화」, 『새로운 정치학』, 인간사랑.
- 이은선, 1995, 「유교와 페미니즘, 그 관계의 탐색을 통한 '한국적 페미니즘' 전망」, 『동양철학연구』.
- 정진성, 1999,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 여성학의 논의: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15권 2호.
- 정현백, 2003,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 조주현, 1996,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12권 1호.

강남식 itskns@skhu.ac.kr | 성공회대 연구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복지위원장.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역임. 저서로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공저), 주요논문으로 「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정책」 등 다수가 있다.